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마태 5,9)

평화와 사랑 전파하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요?

이런 이들이 아니에요:

- 태평한 이들,
- 평온함을 사랑하는 이들,
- 분쟁을 건디지 못하는 이들,
- 본성적으로 회유적으로
보이지만, 자주 방해 받기를
원치 않고 귀찮은 일을
원하지 않는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는 이들.



이런 이들은 아니에요:

- 도발 당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할 때도 하느님을
신뢰하며 반응하지 않는
선량하다는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 평화를 참으로 사랑하여 분쟁에
끼어들어 평화를 가져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

자신 안에 평화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평화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태도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하느님의 뜻을 하면서 에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노력해요.**

- 관계를 이루고,
•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맺고, 긴장을 완화하고,
가족, 직장 및 학교 스포츠,
국가들 사이에서 냉전
상태를 해체하고자 해요

centro.rpu@focolare.org

da un commento di Chiara Lubich
dalla Parola di vita di nov'97
Parola di Vita
movimento dei
focolari
adattamento Centro Internazionale Ragazzi per l'unità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마태 5,9)

어디서?

이렇다는 것을 알 때 너의 집에서도:

- 아버지가 삼촌과 다투고 나서 한번도 말을 걸지 않을 때.
-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할머니가 윗집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을 때.

혹은:

- 직장 동료들끼리 경쟁할 때.
- 네 자신이 학교 친구들과 싸움 중일 때
- 스포츠 동우회 사이의 관계가 항상 모범적이지는 않을 때



- 다른 이들을 넘어서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너를 지배할 때.

주변을 둘러 보면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가 매일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병원이며 국가는 종종 너무나 큰 병을 앓고 있어서 긴장 관계와 지속 불가능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참으로 필요함을 느끼게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선, 세계 곳곳에 사랑을 전파하면서 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평화가 위협받을 때 주의해서 개입 할 것인데요. 드물지 않게 **사랑으로 끝까지 경청** 하기만 해도 싸움 중에 있는 이들이 평화의 해결책을 찾아요. 종종 사소한 일로 인해 중단 된 관계가 회복 되기 전까지 너는 안심하지 않을 것인데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유머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해요.** 한 랍비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미래의 왕국은 기꺼이 농담을 하는 이들의 것인데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는 이들이기 때문이다.